“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월정사, 대선 앞두고 토론회
진보 · 보수 의미 고찰해 눈길
200여 대중 참여 열띤 토론

이동격 강원지사장



평창 월정사는 5월 24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고찰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월정사는 5월 24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월정사가 주최하고 오대산생명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사찰에서 보기 드문 정치·철학 담론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교구 소속 스님들과 대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전환포럼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세 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탐색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혼돈과 분열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이 공론의 광장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담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이해영 교수(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는 ‘진보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르크스의 경우’를 주제로, 동양의 불교사상과 서양의 마르크스주의를 비교하며 ‘해탈’과 ‘해방’이라는 공통된 지향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보의 개념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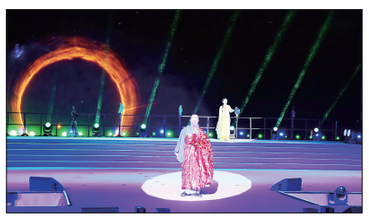
김명섭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발제에서 현대 정치 담론 속 진보와 보수의 상대성과 시대별 의미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는 ‘진영을 가로지르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재정의했다. 그는 현실 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진보 속 보수’와 ‘보수 속 진보’ 현상을 짚고, 인간 인식의 체계와 지향성의 차원에서 이념을 새롭게 성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자들과 청중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오대산생명문화원장 현기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옛 성현의 말씀 중에 ‘인(因)이 부족하면 연(緣)을 강화하고, 연이 부족하면 인을 강화시킨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인과 연이 강하고 약한지 살펴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 강과 산이라는 구별을 넘어 한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모두 강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명 대사’ 다룬 미디어 음악극 첫선

제67회 밀양아리랑축제서
성파 대종사 관람하고 격려



사명 대사 유정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규모 서사극 ‘사명 대사-칼을 품고 슬퍼하다’가 5월 23일 제67회 밀양아리랑축제에서 성황리에 첫선을 보였다.〈사진〉

‘사명 대사-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이상훈 소설가의 장편소설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원작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음악극으로 총 12장면, 19곡으로 구성됐다. 밀양강과 영남루의 실경을 활용해 평양성 전투, 일본과의 외교 담판, 사명 대사의 결단 등을 웅장한 무대로 재현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성파 대종사는 “이제는 혼자 잘 사는 시대가 아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 성료

5월 23~25일 속초 일원서



설악산문의 큰 어른이자 선시의 대가인 설악 무산 대종사(1932~2018)의 문학·예술 정신을 기리는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이 속초 청초호 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가 주최·주관한 축전은 5월 23~25일 ‘설악청소년문화축전’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축전 기간에는 인기 록밴드 크라잉넛과 세계적인 댄서 아이키가 이끄는 댄스팀 HOOK, 뉴진 스님의 특별 공연도 진행됐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철의 도시 광양서 불교문화 꽃 피우다

지역 불교人 **신명옥 광양 불암사 유물전시관 이사장**



‘철의 도시’로 불리는 전남 광양. 산업과 항만의 이미지가 강한 이 도시에도 조용히 불교문화의 숨결을 전하는 공간이 있다. 섬진강 줄기 너머 하동의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불암산에 자리한 ‘불암사 유물전시관’이다.

이곳은 광양에서 유일한 민간 불교유물 전시공간이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불교유물과 민속용품까지 다양한 전시품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시관을 운영하는 신명옥 불암사 유물전시관 이사장〈사진〉은 “이곳은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라며 조용히 웃음을 보였다.

불암사 유물전시관은 사찰 내부 운영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 이사장은 “유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여느 공공기관 못지 않다”고 말한다. 관람객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 작은 절에 이런 유물이 있네”라며 놀라움을 표한다.

“학자도 오시고 일반 불자들도 많이 오세요. 책에서만 봤던 유물을 가까이서 접했다며 감사를 표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관람객들의 감동은 전시물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전시관에는 통일신라 금동불입상, 고려 흑백상감물고기문 매병, 감지은니묘법연화경 7권 완질본, 조선 삼존불감과 석제연꽃무늬사리함 등 다수의 문화유산 지정 대상 유물과 민속용품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신 이사장의 설명이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신 이사장이 가장 아끼는 유물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된 청동 촛대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해학적인 조형미를 지닌 이 촛대는 불자들과도 깊은 인연이 닿아 있다.

불암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전통문화자원이 부족한 광양에서 전시관은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광양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가족 단위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온다.

“예전에는 문화생활을 위해 멀리 가야 했지만, 이젠 가까이서 우리 역사와 유물을 접할 수 있다는 데 다들 만족해하시더군요. 이 작은 전시관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최근 불암사는 자연석으로 조성된 ‘굴법당’을 중심으로 기도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자연 석굴 형태의 공간은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기도처였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 신도분들을 위해 약사여래불을 봉안하고 기도도량으로 가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병으로 힘들던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끝으로 신명옥 이사장은 “불암사 유물전시관은 누구나 편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고향 집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시관은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이 공간을 지키고, 또 누군가는 배움을 얻어가겠지요. 전 그저 이곳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여 무량사서 문화체험 한마당



천년고찰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400명이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사진〉

BTN불교TV ‘문광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 법회’의 성지 순례단이 5월 24일 부여 무량사를 방문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참가한 것. 순례단은 탁본, 다도, 붓글씨, 전통 목판 인쇄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안 쌍봉사,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

5월 28일 경내 일원서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와 쌍봉사 반찬 나눔 봉사단(회장 김진옥)은 5월 28일 경내 일원에서 진안군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170여 명을 초청해 ‘제4회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나눔 봉사단 등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지역사회 함께한 ‘어울림한마당’

행복한이주민센터, 나눔과비움
5월 24일 오산시청 광장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특별한 나눔 축제가 오산시청 광장에서 펼쳐졌다.〈사진〉 5월 24일 열린 ‘2025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어울림한마당’은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어울림한마당은 행복한이주민센터(센터장 이선미)와 사단법인 나눔과비움(이사장 김동희)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오산시청과 시의회, 국회의원실, 경찰서,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시민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 문화공연과 나눔 바자회, 전통음식 체험 등에 적극 참여하며 다문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깊은 연대 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나눔 바자회는 각국 전통음식과 사찰에서 직접 만든 전통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다문화가정과 중도입국자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공연은 가람국악예술단의 가야금 공연을 시작으로 오산시 홍보대사 앵두걸스, 가수 려화·정달빛,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라온제나’의 노래로 진행됐다.

김동희 사단법인 나눔과비움 이사장은 “국적과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가족”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백운 스님 5주기…승가교육 선지식 추모

5월 24일 담양 용흥사서 다례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백운당 지흥 스님(1934~2020)을 추모하는 5주기 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5월 24일 대웅전에서 ‘백운당 지흥 대강백 5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례재에는 백운 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종열 대종사와 돈명 대종사, 도서 대종사(법계위원),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월우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일수 스님(백양사 수좌),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우석 스님(화엄사 주지), 무자 스님(송광사 주지), 성화 스님(총무부장) 등 종단의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 스님의 5주기 다례재에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 정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큰스님의 5주기를 맞아 법맥을 잇는 제자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그 음덕을 되새기고 있다”며 “큰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종단 발전과 불법 홍포에 헌신하신 길 그 자체였다. 중생을 위해 다시 속환사바 해달라”고 추모했다.

이날 용흥사 측은 백운 스님이 생전 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조계고승전’을 단행본으로 발간해 참석 대중에게 배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중국 관음·미륵신앙 성지순례

5월 21일부터 4박 5일 일정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간직한 중국 낙가산과 보타산, 미륵신앙의 중심지 설두사를 비롯한 대표적인 성지를 순례하며 깊은 신심과 수행 의지를 다졌다.〈사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37명과 재가불자 40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졸업식

경해학당 수료식도 함께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학장 지산 대원 대종사)이 5월 25일 불교대학 제23기 졸업식과 2024 경해학당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불교대학 제23기는 99명이 졸업했고, 대학원 과정인 경해학당 주·야간 과정은 231명이 수료했다. 학장 지산 대원 대종사는 “‘내가 바로 보살’이라 생각하면 더욱 신심이 생길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